

1) '포스트-휴먼'과 행위자

기계 (machine)와 인터넷이 개발되기 수십 년 전에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를 강조했던 시몽동은 기계 - 그의 표현의 의하면 기술적 대상- 를 하나의 '개체'로 바라봤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 자기 고유의 존재 방식을 가진 개체들 간의 상호 협력적 공존과 연대의 관계"로 제안했다. 기계는 생명체의 창조와는 비록 다른 출발점, 즉 기술적 발명에서 시작했지만 인간과 기계는 유비적으로는 동일한 개체발생과정을 통해 산출된 개체이자, 더불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들(actors)이다. 최근 라투르 등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지 않으며 하나의 네트워크 안의 관계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그 동안 사회구성에서 배제되었던 기술, 사물과 같은 비인간(non-human)을 행위자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세계를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적 효과'로 인식하면서 관계성과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포스트-휴먼'을 다시 생각해보면, 새로운 인간상은 기계와의 보철적 결합이나 기계 감각을 활용한 인간 감각의 확장 또는 네트워크와의 직접적 신체 연결과 같은 기술 활용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기계와 같은 비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바라보고 그 행위자들과 관계적 효과를 맺는 열린 태도에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휴먼'은 혼종성(heterogeneity)과 집합성(collectivity) 모드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는 이질적인 하나의 실체이자 동시에 다양한 사유와 태도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이기도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인간을 지구상 유일한 '개체'이자 '주체'라고 믿어왔고 타자를 배제해왔던 인간의 특권화, 인간-우월주위에 대척점이자 이분법적 태도의 해체 지점이다. '포스트-휴먼'은 여러 타자와 개체들의 입장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 파열이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현대미술이며, 미디어 아트는 기계와 기술에 대한 이용과 통제라는 관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을 인간과 같은 행위자로 인지하는 태도의 전환이 등장하는 영역일 것이다.

2) 기술-생태로서 미디어아트

인류세(Anthropocene)는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을 나타내는 지질 시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산업혁명 이후를 뜻한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영향은 단순히 지구 환경을 변형시키는 정도를 넘어,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차원의 자연을 구성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자연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노동력을 통해 변형했던 인간적-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생태가 되어가고 있다.

순수한 생태와 자연은 불가능한 개념이 되었다. 동시에 '인간화된 환경'이란 표현 역시 인간중심적 사유가 드러나는 편향된 단어이기도 하다. 자연-인간-사회-기술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계 맺는 네트워크로 생태는 변화하고 있다. 기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자연, 환경, 문화, 도시 그리고 인간 등의 여러 행위자들의 관계적 효과를 언급하기 위해,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기술-생태'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기술-생태'는 인간과 기술, 자연과 기술이라는 기존의 대립구조를 넘어 기술이 자연과 인간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기술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실체화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자연-인간-사회의 관계 맺음이 창조적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미디어 아트일 것이다. 미디어 아트는 '기계화된 인간(기술적 인간)'과 '기계화된 생태(기술적 자연)'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기술철학자 김재희는 말한다. 미디어 아트는 '기술-생태'에 대한 개념화이자 실체이고 동시에 개별적인 판본들이다. 싱가포르와 한국이란 두 국가는 같은 동아시아이지만 각기 다른 기술환경과 자연환경에 있다. 두 국가의 미디어 아트(창의적 기술-활동)를 통해 우리는 '기술-자연-인간-사회' 등의 여러 행위자 간의 관계와 효과를 바라보고자 한다